지역중소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 도내에서는 에코에너지원 등 7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부)단체장들과 100개의 선도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17일 개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14개 광역시·도는 올해 3월 1차 선정을 하고 이어 지난 11월 2차 47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추가 선정했으며, R&D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정된 기업을 본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14개 시·도는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회(상·하반기)에 걸쳐 모집했다.

그 후 약 3개월에 걸쳐 지자체 주도로 전문가 서면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검증과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으며 전북지역은 에코에너지원(주) 등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을 축하 및 격려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도기업 비전을 대내외 선포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이영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영상 시청,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개사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총 19개 기관 간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R&D, 금융, 판로, 인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캐플릭스는 국내 최초로 렌터카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출시해 스마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으로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재경 청장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배 신품종 '그린시스' 후식에 제격

싱가포르 현지 식당 2곳 등서 식미 평가 진행

배 신품종 '그린시스'가 싱가포르 유명 식당의 요리사 입맛을 사로잡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는 싱가포르 현지 식당 2곳 '메타레스토랑(Meta Restaurant, 미쉐린 1스타)과 '클라우드스트리트(Cloudstreet, 미쉐린 2스타)에서 배 신품종 '그린시스' 식미 평가를 진행 했다.

이날 미쉐린 요리사를 비롯해 현지 유명 요리사 8명은 농촌진흥청 신품종 배 '그린시스'에 대한 '겉모양, 당도, 식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그린시스'는 농촌진흥청에서 동양배와 서양배를 교배해 2012년 육성한 품종이다.

무게는 1개당 460g으로 크지 않아 1인 가구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고 당도는 12.3브릭스 정도이며, 과즙이 풍부하고 산뜻하며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이번 평가회에 참여한 요리사들은 "'그린시스'는 과즙이 많고 식감이 딱딱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후식 차림에 잘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특히 클라우드스트리트(Cloud street) 식당의 마이라 요(Maira Yeo) 요리사는 "그린시스와 같이 새로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싱가포르 고소득층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크기, 맛, 식감, 겉모양이 독특한 한국의 신품종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싱가포르의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입액은 1억 7,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고복남 과장은 "싱가포르의 지명도 있는 유통업체를 통해 '그린시스'를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 수입상(바이어)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배추·무 등 김장재료 특별 할인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10개소에서 배추, 무 등 김장재료 할인판매 진행 계획을 17일 전했다.

직거래장터는 완주 용진농협, 동김제농협, 정읍원예농협, 익산원예농협, 남부안농협, 소양농협, 전주농협효자점, 남원원예농협, 지리산농협, 동군산농협 등 총 10개소에서 소비자가격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중부발전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권재홍)는 한국중부발전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한국중부발전 본사에서 공사 권재홍 상임감사와 중부발전 곽영교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해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자체감사 품질 향상 사례 공유, 감사인력 지원,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동교육'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자체 감사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ESG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북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동안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홍보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한 발 앞서'

전북농협, 20일까지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홍보 대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북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동안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홍보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개회식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운천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협과 지역 농가에서 개발한 50여종의 가공품을 품평하고 '사과·배·샤인머스켓' 등의 원예농산물과 향기 나는 쌀 십리향미를 수도권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특히 이번 판매대전을 통해 전북농협은, 자체 발간한 스마트폰 고향사랑 전자북, 지자체 홍보 동영상, 자체 제작한 답례품 포장상자를 전시했다. 또 참가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농협생산 가공품 5종세트 나눔 행사를 병행해 이날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 전북농협은 지자체와 함께 농업인에게 최대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농축산물을 상품기획 및 홍보하고 농축협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포털(고향사랑e음)을 통해 원활하게 답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 실익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승용형 농기계용 직진 자동조형장치 개발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추가 설치 가능… 농작업 편의성 향상 기대

농진청, 산업 재산권 추원 완료… 관련업체 기술이전, 농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는 농작업 편의성을 높이고자 기존 승용형 농기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승용형 농기계용 직진 자동조향장치'를 개발했다. 자동조향장치란 'GPS, 관성측정장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주행을 보조하는 장치이다.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성화로 농작업 기계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농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 조작이 미숙해 효율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사용자가 손쉽게 농작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일체형으로 제작돼 농기계 구매 비용이 든다. 기존 농기계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승용형 농기계용 직진 자동조향장치는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 기존의 승용형 농기계에 붙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고정밀 자율항법장치(RTK-GPS)와 관성측정장치, 조향장치(전동 운전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가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반으로 주행경로가 생성되고 이를 따라 직진 주행을 도와준다. 고정밀 자율항법장치는 ±2㎝ 이내의 정밀도로 위치를 측정해 ±7㎝ 이내의 오차로 설정한 경로를 따라 직진 자율주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체에서 직진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조향장치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사용자 조작 편이성이 높고 이중(듀얼) 안테나를 사용해 저속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이 장치를 직접 사용한 농업인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반듯하게 직진 주행하기 때문에 작물을 심을 때 한두 줄 더 심을 수 있어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승용형 농기계용 직진 자동조향장치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